

저팬 얀 페어 - 섬유 제품의 시작은 실로부터 <3/4>

◎ 견, 모, 마 등의 각종 스톡사 판매가 갈수록 늘어나

의류 소재(衣類 素材)도 개성이 요구되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다품종 소로트 생산(多品種 小lot 生産)의 흐름이 갈수록 강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 흐름에 맞춰가기 위하여 저팬 얀 페어(Japan Yarn Fair : JY)에서는 스톡 판매(stock 販賣)가 충실해지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 있다.

실크의 전문 회사인 마쓰무라(松村)는 이번 전시회에 처음으로 색사로 비축하게 되는 60수 2합 연사(2合 撚絲), 120수 2합 연사의 60가지 색의 견방사인 ‘코콘’을 출품하였다. 이 회사는 베트남에도 생산 거점이 있으며, 베트남에서는 비축하지는 않고 있는데, 재고품을 염색하여 코콘과 똑같은 실을 공급할 수가 있다. 역시 일본 국내 시장은 판매가 줄고 있지만, 해외 시장은 조금씩 판매가 넓어지고 있으며, “일본 품질을 구하려는 요망(要望)이 강하다.”고 하는 인도 등으로 늘고 있다.

위와 같은 실크와 관련해서, 아이치현(愛知縣) 이치노미야시(一宮市)에 있는 하세가와(長谷川) 상점도 실크사, 실크의 복합사를 중심으로 약 600품번(品番 : 상품 管理上 종류, 형상, 색, 규격 등에 따라 붙인 번호)의 약 6,000색을 비축하고 있어, 다양한 상품군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자기 회사에 도입한 연사기(撚絲機)를 살려, 스톡사(stock絲)를 연사(撚絲)하는 별도 주문 서비스(別途 注文 service)도 개시하였으며, 고객의 섬세한 니즈(needs)에도 대응할 수 있다.

울(wool) 관련으로는 기후현(岐阜縣) 오가키시(大垣市)의 산코 텍스타일(三甲 textile)이 ‘수퍼(super) 120’의 초극세 울(超極細 wool)에 ‘바스란 가공’을 한 72번수의 3합연사(3合撚絲, three folded yarn)로 32색의 스톡 판매(stock 販賣)를 시작하였다. 3합연사로서 비축은 많지 않으나 ‘개성이 살아 있는 소재가 아니면 경쟁에 끌려 들어가게 된다.’ 일본 뿐 아니고 중국에서도 보세 창고(保稅 倉庫)에 비축함으로써 편리성도 있다.

기후현(岐阜縣)에 있는 도요지마 방적(豊島 紡績)은, 전번 JY에서 라미(ramie) 100%의

33가지 색의 톱사를 전시하여 호평을 받았는데, 이번 전시회에서는 44색의 톱 염색 울사(top 染色 wool絲)인 ‘부마’를 발표하였다. 관람자들의 평가는 매우 좋았으며, 많은 곳에서 견본장(見本帳)을 요망하였다.

마(麻) 관련 스톡 판매도 다종다양하게 되었다. 모리린은 팬시 얀(fancy yarn)인 ‘드라곤’이나 123색의 ‘프로비스코스’의 스톡 판매(stock 販賣)뿐 아니라, 리넨(linen) 100% 톱사(top絲)의 12개 색으로 되어있는 ‘샹그리라’도 출품하였다. “세계적으로도 이와 같은 실을 만들고 있는 곳은 별로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 판매가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면, 리넨 콤팩트(compact)사(絲)인 ‘리네테란’ 등, 혁신적인 마 소재를 개발해 온 데이코쿠 섬유(帝國 纖維)는 캐주얼 라이크(casual-like)한 촉감이 특징인 15수 단사, 25수 단사의 5색과 40수 단사 2색의 톱 염색 리넨사(top 染色 linen 絲)를 비축하고 있다. 성수기 가깝게 발주가 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쉬운 니트(knit)로 공급하고 있으며, 스톡 판매를 시작하였다.

오가닉(organic)의 마소재를 출품하였는데, 셰틀랜드 울(shetland wool) 80%에 리넨(linen) 20%를 짜 맞춘 14수 단사 8색의 톱사(top絲)도 사용하여 리넨의 당김새, 차진 맛이 울과 잘 어울려 새로운 소재감을 만들어 냈다. 마 소재는 그동안 춘하절 소재 이미지가 강하였는데, 최근에는 그러한 이미지도 시들해져 가고 있으며, 사계절에 사용되는 케이스도 늘고 있어, 마 관련 소재 개발이 각사에서 활발하게 추진되어 가고 있다.♣